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한
안전한 보건용 마스크
구입 및 사용요령!

자세히보기



#정책브리핑

의료용 마약류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통방통 식약처

꿀팁 득템!
위생용품관리법 편



#식약인터뷰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가장 안전한 식품 먹고 있는 현대



#이슈클릭

멀미약 사용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식의약어벤저스

국민의 건강을 지킬
식의약 어벤저스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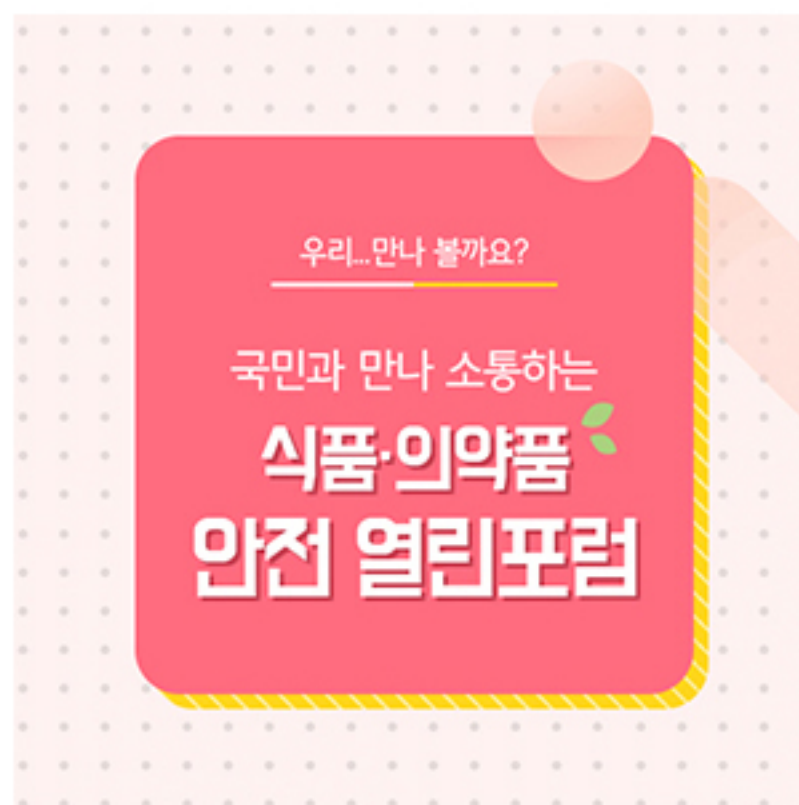
#건강꿀팁

꽃 피는 봄~
어김없이 그들이 온다!



#공감! 팩트체크

음식으로 먹을 때는 잘 못 느끼는 나
트륨량,
시민들에게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열린소통

국민과 만나 소통하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신통방독 식약처 | 식약사터뷰

음성으로 듣기



철저하고 체계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2018.03.29

식품의약품안전처

철저하고 체계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마음 속에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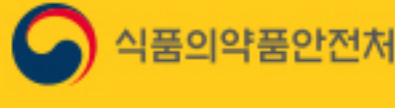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로회복주사로 사용하는 경우처럼,**

공부 잘하는 약(각성제), 살 빼는 약(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뉴스가 이제는 익숙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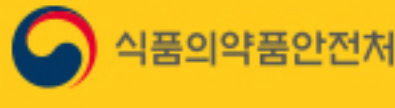

정부는 2018년 5월 18일부터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모든 취급정보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고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던
**항정신성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마약과 함께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여**
꼼꼼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세부 취급 ✖
내역까지 추적**



이처럼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릇된 **약물 사용**과 **과다처방** 및 **불법의료쇼핑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다처방
안돼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웹진 <열린마루>

☑ www.mfds.go.kr/webzine

 식품의약품안전처

신통방독 식약처

정책브리핑 | 신통방독 식약처 | 식약사터뷰



< 궁금할땐? 신통방통!



예리한 예린이

아까 점심에 넘 과식했나봐~



세상젤 궁그미

단짠단짠~ 호로록~ㅋㅋ
가성비 갑이었지ㅋㅋ



예리한 예린이

ㅇㅇㅋㅋㅋㅋ근데 우리 아까
식당에서 물티슈~
좀 짹짹하지 않았어?



세상젤 궁그미

왜잉

물티슈가 왜?



예리한 예린이

물티슈에 있는 물이
깨끗할까 급 궁금해지더라고~

< 궁금할땐? 신통방통!



세상젤 궁그미

헐..난 한번도 생각 안 해 봤는데!!ㅠㅠ



예리한 예린이

물티슈는 계속 젖어있는데
세균이 번식하지 않을까?



세상젤 궁그미

음..듣고 보니 그러네~!
그럼 우리 친절한 처장C에게
물어보지 않을래?



예리한 예린이

최고!

굿아이디어~ 친절한 처장C
초대해줘~!

< 궁금할땐? 신통방독!

+ 세상젤 궁그미님이 친절한 처장C를 초대하였습니다.



세상젤 궁그미

어서와~ 여기 단독방은 처음이지? ㅋㅋ
궁금한게 있어서 초대해써~



친절한 처장C

잘 했어~ 궁금한 게 모아?



예리한 예린이

식당에서 자주 나오는 물티슈이짜나~
과연 깨끗할까?



친절한 처장C

아! 그거라면 걱정 마~
★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야!

< 궁금할땐? 신통방독!



세상젤 궁그미



위생용품관리법?



친절한 처장C

쉽게 말해서 물티슈처럼
위생용품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야~

이전에도 위생관리를 해왔지만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할 수 있어~



예리한 예린이



아 진짜? 오졌다리 오졌다!



친절한 처장C

그래서 국내 생산 제품은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해~
수입제품은 수입할 때마다 검사를 하고~

< 궁금할때? 신통방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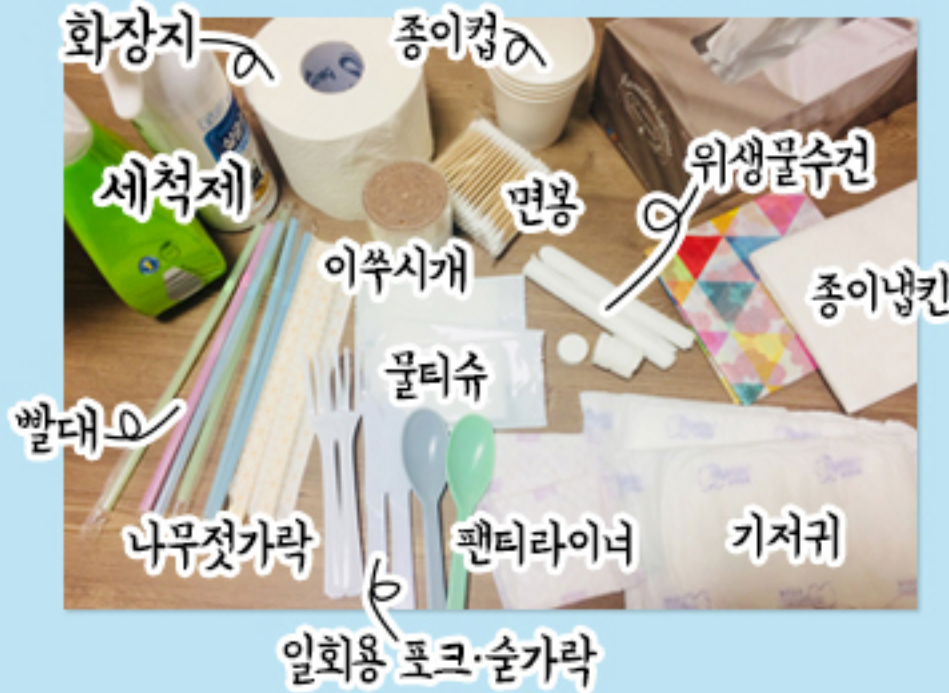
세상젤 궁그미

그럼 위생용품은 어떤 거야?
식당용 물티슈만이야?



친절한 처장C

그럴리가~! ㅎㅎ
총 19개 품목이야~



예리한 예린이

우리가 자주 쓰는 건
다 포함인데? 대박이다!



세상젤 궁그미

WOW~! 그럼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확인하면 돼?

< 궁금할때? 신통방통!



친절한 처장C

"위생용품"이라는 표시만
확인 하면 돼~ 완전 간단하지?



예리한 예린이

이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



세상젤 궁그미

4월아~ 빨리 와줘~!



친절한 처장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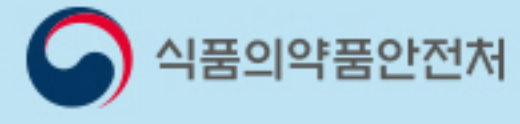
앞으로 식품·의약품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 보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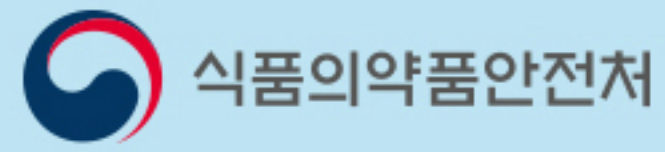
예리한 예린이



친절한 설명 그웨잇!
또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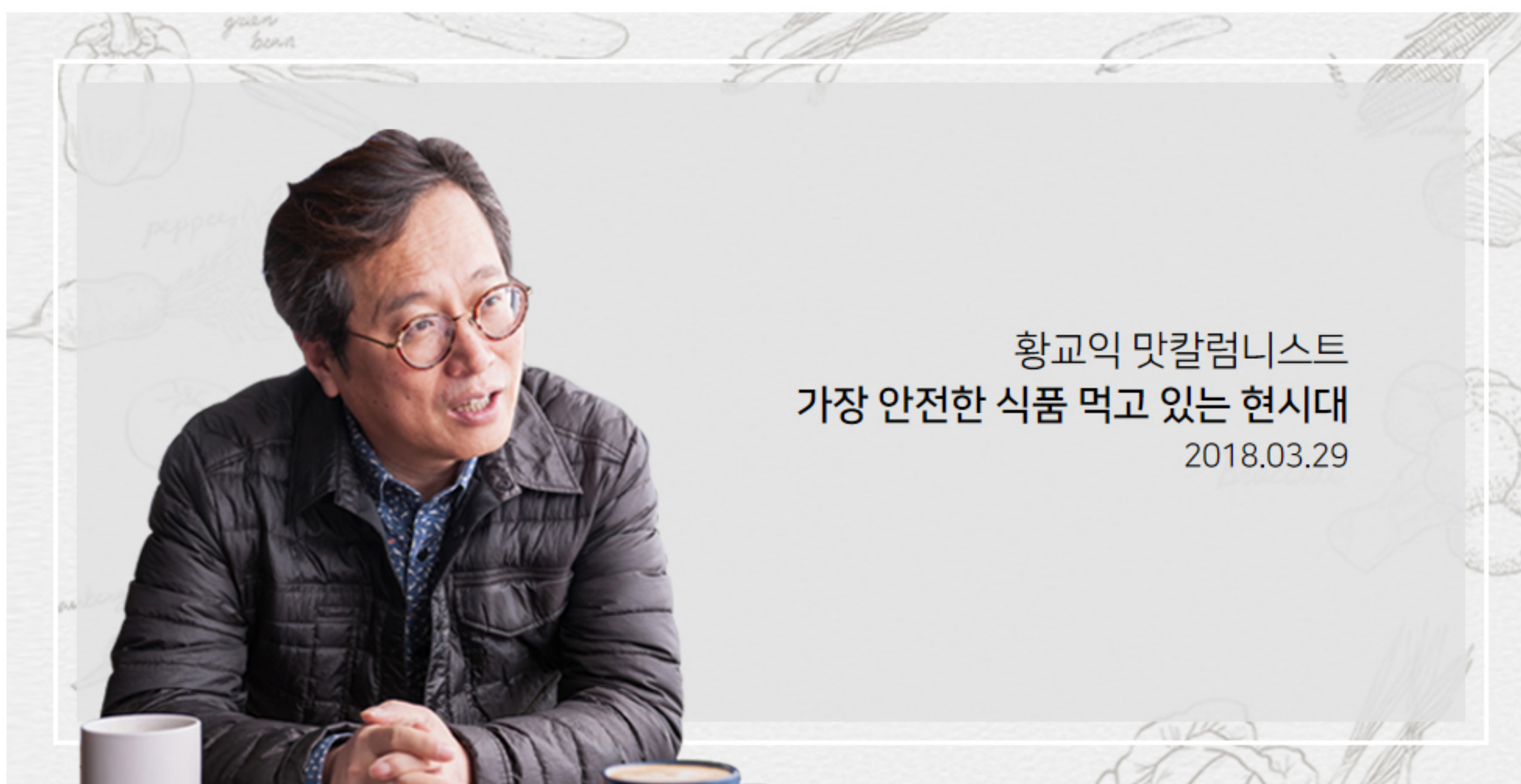


-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 웹진 <열린마루>
www.mfds.go.kr/webzine



식약사터뷰

정책브리핑 | 신통방독 식약처 | 식약사터뷰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가장 안전한 식품 먹고 있는 현시대
2018.03.29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체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들은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맛 칼럼니스트이자 방송인의 활동하는 황교익 씨. 그는 음식과 맛의 전문가인 만큼 식품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문제에도 까다롭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에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대쪽 같은 면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식품을 접하고,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 황교익 씨를 만나 이야기해봤다.

맛 칼럼니스트이자 방송인의 활동하는 황교익 씨. 그는 음식과 맛의 전문가인 만큼 식품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문제에도 까다롭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에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대쪽 같은 면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식품을 접하고,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 황교익 씨를 만나 이야기해봤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식품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괜한 불안, 괜한 공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괜한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현황을 파악하면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확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등에서 식품을 구매해 먹습니다. 그런데 식품을 파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판매합니다. 만약에 판매한 식품에서 아주 작은 이물질이 나와도 문을 달아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죠. 유통단계에서부터 채소나 과일은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유통된 후에도 추적해서 위험한 식품은 즉시 수거합니다. 가공식품은 식약처의 규정을 어기면 시장에 내놓기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주 촘촘하게 식품안전 규정을 만들어서 가공업체들이 죽어난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니까요.(웃음) 우리나라 식품안전 규정은 아주 까다롭기로 전 세계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악명이 높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란 의미지요.



그렇다면 왜 괜한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강연을 가면 질문시간에 소비자들은 ‘어떤 설탕이 좋아요?’, ‘소시지는 위험하죠?’, ‘유기농만 먹어야겠죠?’라고 묻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실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의 영향이 컸습니다. 식품업계에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식품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면서 자신이 추천하는 식품은 공포와 거리가 멀다고 판매하는 거죠.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면서 농약을 치는 관행농이 위험하다고 몰아가는 식인데요.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은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실제로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물로 씻으면 다 씻겨 내려가는 정도죠.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이 안 좋다, 유기농이 아닌 채소와 과일엔 농약이 남아있어 위험하다 등 마스크에서 들은 정보를 갖고 걱정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은 식약처가 정한 규정에서 허용된 것만 사용합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증명된 거죠. 국가기관이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인데 위험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식품안전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먼 시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3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평균 수명은 20세였습니다. 인간이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서 영양상태가 너무 안 좋았죠. 문명이 생기고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조선말 기준으로 평균 수명은 40세였습니다. 유아사망이 심각했고 질병이나 위생문제도 있었지만,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대수명이 100세가 되었죠. 100년 남짓한 기간 만에 평균수명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각종 의료기술과 과학발달도 큰 역할을 하지만, 먹을거리가 좋아졌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음식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기사가 수시로 실렸었습니다. 지금은 만약 식품 때문에 누가 사망했다고 하면 나라 전체가 들썩입니다. 그 식품을 만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물질만 하나 나와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죠. 그만큼 우리는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즐겨야 하는데 왜 자꾸 식품에 공포를 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에게 식탁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런 식품안전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사실상 어렵습니다.(웃음) 이러한 공포는 인간이 가진 안전욕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정의한 인간의 동기욕구 5단계 중 하나는 안전욕구입니다. 내 삶이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라고도 할 수 있죠. 즉 비교대상이 있어서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먹지 않는 식품에 불안과 공포를 붙이는 것이죠. ‘나는 유기농을 먹어. 왜? 농약을 치는 관행농보다 안전하니까.’, ‘나는 첨가물이 없는 가공식품을 먹어. 왜? 첨가물을 넣는 가공식품보다 안전하니까.’ 이런 방식인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과학적인 것을 믿을 것인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을 것인가를 말이죠. 식약처의 시스템과 정보들을 믿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마스크에서 자꾸 식품에 불안을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겠지요.



식품안전 문제 중 위생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외식업소가 50만 개 정도고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위생개념 등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편은 아닌듯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을 할 때 기본적인 위생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좋은 제도입니다. 위생적인 음식점에 별을 달아주는 것도 의미 있지만, 위생등급제를 위해 음식점을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생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위생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일정기간 동안 위생교육, 현장교육을 강제적으로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맛 칼럼니스트로서 수많은 식품을 접하고, 해외 여러 나라의 식품안전체계도 확인하셨을 듯합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체계는 어떤 수준인가요?

일을 하면서 식품학자들과 수시로 교류를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식품안전체계를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더 까다롭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생독립국가였기 때문에 식품 위생규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식품안전체계 중 최고의 시스템과 규정들만 모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학자들은 다른 어느 나라의 식품안전체계보다 우리나라의 식약처를 믿으라고 할 정도로 최고 수준입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만 해도 식품제조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사하고 관리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완제품의 안전만 확인하는데 비해 제조과정을 전부 확인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은 식약처,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믿어도 될까요?

식약처는 국민이라는 다수가 먹는 식품을 안전하게 잘 관리해서 생산하는가를 들여다봅니다.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즉 생산자, 식품학자, 유통자, 마케팅업자, 식약처 중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 최종적으로 믿을 것은 국가라고 봅니다. 식약처 공무원들도 국민입니다. 이들이 먹는 것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자기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가 되어 식품안전 관련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해가 되게 하려고 일하는 건 아니지요. 잘못된 일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확실히 질책하고, 사람 문제 인지 장비문제인지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 받기 위해 감시하고 응원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촘촘한 시스템 운영과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농민신문을 거친 언론인으로 현재는 대한민국 제1호 맛 칼럼니스트로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지방을 돌아다니며 온갖 향토음식을 먹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맛 칼럼을 쓰면서 유명 식당을 섭렵하였다. 그렇게 맛본 음식 이야기로 <맛따라 갈까보다>(2000), <소문난 옛날 맛집>(2008), <미각의 제국>(2010),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의 행복한 맛여행>(2015) 같은 책을 냈다. 2002년부터는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에서 지역 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과 브랜드 개발 컨설팅을 하였다. 현재 <수요 미식회>, <알쓸신잡>, <우리가 남이가> 등 방송을 통해 음식과 맛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이슈클릭

이슈클릭 | 식약처스캐치 | 건강꿀팁



의약품 복용법
멀미약 사용시
이런점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멀미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멀미
피켜~

<멀미 예방하는 방법>

- 멀미약 복용하거나 붙이기
- 수면
- 먼산 바라보기

멀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멀미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멀미약에는 먹는 약과 피부에 붙이는 약이 있습니다.

멀미란 무엇일까요?



<멀미 증상>



구토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

멀미는 자동차, 배 등의 진동이 귀 안쪽의 평형유지기관을 자극하여 생기는 자율신경계의 일시적인 병적반응입니다.

멀미를 하면 구토,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멀미약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동차(배) 타기 30분 ~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추가 복용시 4시간 이상이 지난 후 복용하세요!



자동차(배) 타기 최소 4시간 전에 귀 뒤 털이 없는 건조한 피부 표면에 1매를 붙이세요!

멀미약 사용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과 같은 기계조작은 금물!



멀미약과 술은
함께 복용하면 안돼요~



어른과 어린이의 복용량은
서로 달라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해주세요~

멀미약 사용시 다음 사람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임산부, 수유부, 고령자



다른 질병(배뇨장애, 녹내장,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사람



수면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

멀미약 붙일 때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① 7세 이하의 소아는 사용하면 안되며, 8~15세 어린이용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해요
- ② 불안, 환각 또는 눈에 통증과 출혈이 나타나면 패치를 제거하고 의사/약사와 상의 하세요~
- ③ 패치 1개는 3일간 효력이 지속되며 3일 후 추가로 필요할 때 반대편 귀 뒤에 붙여야 해요
- ④ 패치 붙일 때 약물이 묻은 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착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품의 정보는 **이지드럭 사이트**에서!

식약처스케치

이슈클릭 | 식약처스케치 | 건강꿀팁



국민의 건강을 지킬 제2기 식의약 어벤저스 239명 선발!



영화 [어벤저스]는 지구의 안보가 위협당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토르, 헐크, 캡틴아메리카, 호크 아이 등 슈퍼히어로들을 불러 모아 세상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어벤저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2기 식의약 어벤저스인데요. 지구의 안보만큼 중요한 식의약 안전에 대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담당할 식의약 어벤저스 239명이 선발되어 올해 말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난 2월 21일 식약처에서는 위촉식을 위해 어벤저스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기 개성이 뚜렷한 어벤저스들이었지만, 식의약 안전에 대한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국민에게 올바른 식의약 안전 정보를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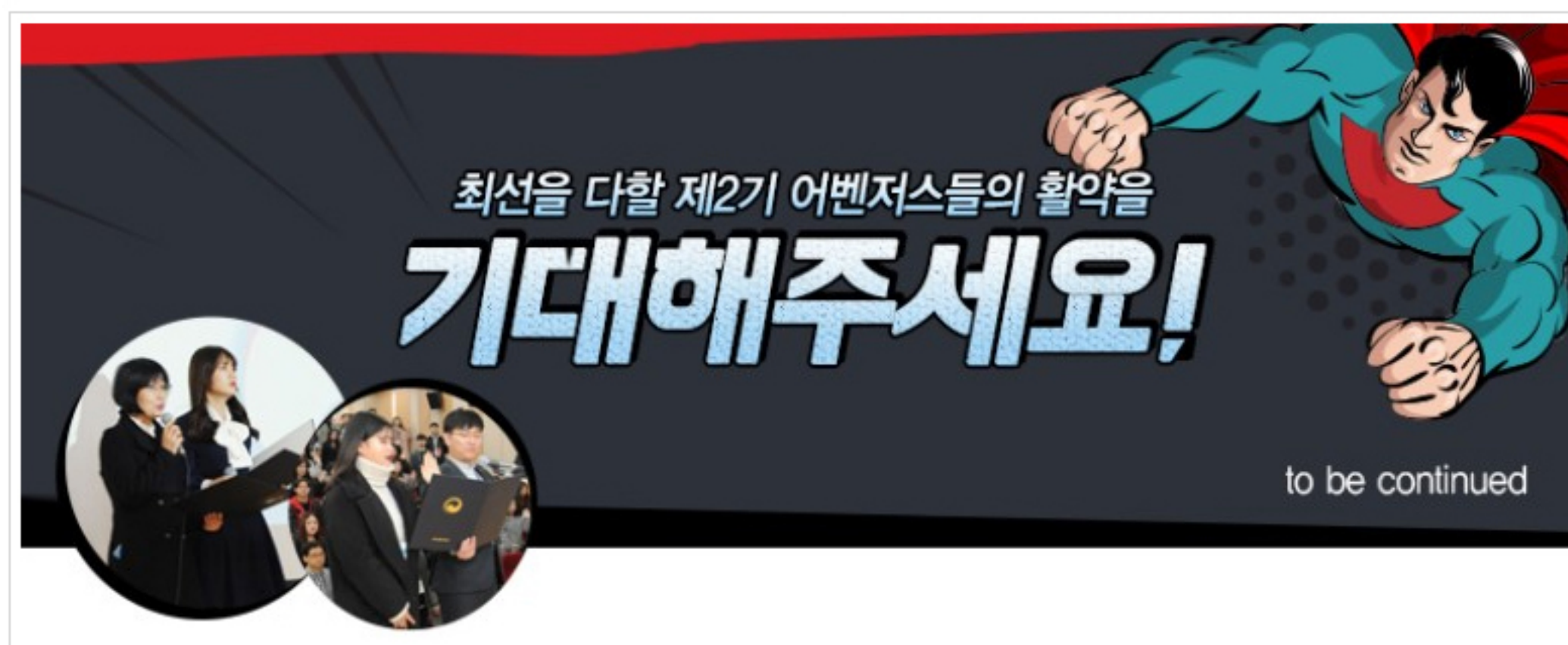


배지와 기념품은 캡틴아메리카의 필수품인 방패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이 방패로 건강을 위해하는 부정·불량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이날 위촉식은 제1기 어벤져스 선배대원의 격려행사, 연간 운영계획 소개, 식약처 주요정책 소개, 식품업체 현장견학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의약 안전에 관련된 일이라면 귀를 활짝 열고 예리한 눈빛으로 집중하던 어벤져스 대원들.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벤져스들은 식약처 주요 정책과 올바른 식의약 정보를 자신의 SNS에 알릴 예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식의약 안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제2기 어벤져스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건강꿀팁

이슈클릭 | 식약처스캐치 | **건강꿀팁**

음성으로 듣기



따뜻한 날씨~ 꽃피는 봄~
 꽃놀이하기에도 부족한 이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알미운 그 이름, 황사와 미세먼지!

황사와 미세먼지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데요.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는
 안전성 및 성능을 인정하는 제품으로,
 KF80, KF94, KF99가 표시된 마스크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세요~!





나들이라도 가려고 하면
우리 앞을 막아서는 존재
알미운 그 이름 황사와 미세먼지!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일반 방한용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KF80, KF94,
KF99가 표시된 마스크 선택은 필수!

'KF'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효과가 큼니다.

KF80	미세입자 80% 이상 차단
KF94	미세입자 94% 이상 차단
KF99	미세입자 99% 이상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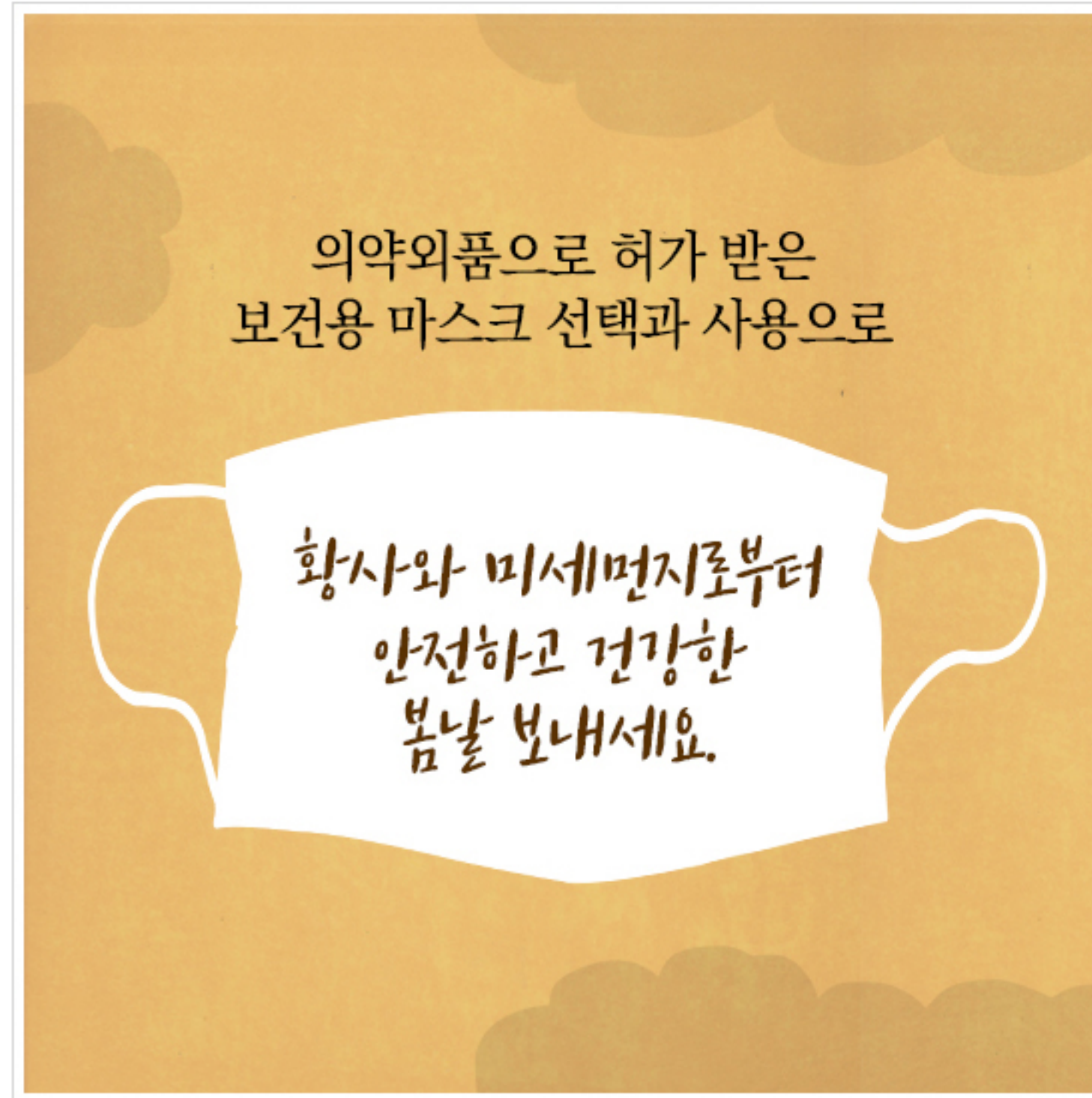
주의! 입자차단 성능이 높을수록 사람에 따라
호흡이 불편할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해요~



마스크 착용시 얼굴 크기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고
코편 부분을 잘 눌러주어 마스크가
전체적으로 얼굴에 밀착하도록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겉면은 가능한 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
세탁은 금물입니다.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웹진 <열린마루>
☑ www.mfds.go.kr/webzine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감! 팩트체크

공감! 팩트체크 | 열린소통



“
라면 등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인스턴트 식품!
나트륨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음식으로 먹을 때는 잘 못 느끼는 나트륨량, 시민들에게 확인시켜드렸습니다
”



열린소통

공감!팩트체크 | 열린소통

국민과 만나 소통하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2018.03.29



우리... 만나 볼까요?

국민과 만나 소통하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내가 먹는 식품,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
궁금한데...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했었다면,
이젠 걱정하지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합니다.




3월 28일
4월
5월
....

열린포럼은

“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식품·의약품 사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국민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



제 1회 열린포럼은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온라인 구매환경 조성〉을
주제로 2018년 3월 28일(수) 14:30~17:00
연세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연세세브란스빌딩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해외직구,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식약처는 열린포럼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식약처,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 알림 > 공지 > 열린포럼

웹진 <열린마루>

☑ www.mfds.go.kr/webzine

